

# 사고와 응급처치

매일유업 www.mall.com

## 벌레에 물렸을 때

모기, 개미, 벌, 빈대 등에 물렸을 때에는 바로 암모니아수나 2%의 증조수를 바릅니다. 물린 후 피부가 빨갱게 부어오르기 시작하면 항히스타민제 연고나 올리브유를 발라줍니다.

\*증조수: 물 100cc에 중탄산소다 작은 수저 한 스푼을 타서 만들.

## 화상과 열탕상

직경 2.5cm 이하의 가벼운 화상을 제외한 모든 화상과 열탕상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중화상을 입은 아기에게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주어서는 안되며, 노출부위의 화상은 깨끗하고 마른 드레싱(붕대로 감아줌)으로 응급처치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가벼운 화상은 상처부위를 흐르는 수도물에 10~20분간 식힌 다음, 와셀린이나 봉산연고를 가제에 발라 덮어줍니다. 수포가 생기면 터뜨리지 말고 치료해야 합니다.

만약 옷을 입은 채로 뜨거운 물에 데었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옷을 벗기고 찬 물에 상처부위를 담근 다음 병원으로 갑니다.

아기에게 있어 화상은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수포가 생기는 제2도 화상이 전신의 1/2이상이면 3~4일 안에 사망합니다. 피부가 깊숙이 데어 검게 변하고 문드러지는 제3도 화상은 전신 1/7정도만 되도 치명적입니다.

## 약물사고

아기가 독성이 있는 약물을 삼켰다고 생각될 때 우선 안정시키고, 먹거나 마실 것은 주지 않습니다. 만일 아기가 토하게 되면 토물을 함께 싸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의식이 없으면 아기를 엎드려 놓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 뒤쪽으로 기울이고 그 쪽 팔·다리를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토할 때 생길 수도 있는 질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고 있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